

결 정

2018 - 104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경북매일 2018년 2월 5일자 1면 「앞선 4명 ‘대혼전’/선두 예측 안갯속/1위 이양호, 2위 김석호」, 2월 7일자 1면 「현직 권영세<27.0%> ‘고전’/3.5%p차 박빙 1위/장대진 도의원 23.5% ‘2위」, 2월 9일자 1면 「박보생 3선 제한/아슬아슬 ‘3과전’/최대원 25.9%로 근소차 1위」, 2월 12일자 1면 「최양식 간신히 ‘1위’/한국당 복당 포석 박병훈과/겨우 0.1%p차 앞선 17.7%/주낙영 12.4·정종복 11.8%」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월 5일자)= 『포항시를 넘어 경북 제1도시를 향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구미시를 이끌 차기시장 후보자 적합도에서 이양호(58) 전 한국마사회장과 김석호(59) 전 경북도의회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경북매일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누가 차기 구미시장으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양호 전 마사회장이 10.4%를 얻어 10.3%를 얻은 김석호 전 도의원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0.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어 김봉재 전 병원장 6.4%, 허복 시의원 6.4%, 이홍희 도의원 4.6%, 유능중(52)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 4.5%, 채동익(71) 전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4.2%, 김철호(64) 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 3.4%, 이규건(55) 서정대 교수 2.6% 순으로 집계됐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259>>

(2월 7일자)= 『새천년 경북도의 새 도읍지 안동시 차기시장 레이스에서 권영세(64) 현 안동시장이 장대진(57) 경북도의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다만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 두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3.0%포인트)보다 불과 0.5%포인트 벗어난 수준에 불과해 당내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경북매일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안동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6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를 활용해 차기 안동시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권 시장은 ‘누가 차기 안동시장으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27.0%의 지지를 받아 23.5%를 얻은 장 도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어 권기창(55) 안동대 교수 14.6%, 이삼결(62) 전 행정자치부 차관 10.2%, 김명호(57) 경북도의원 5.9%, 권택기(52) 전 국회의원 3.6% 순이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509>>

(2월 9일자)=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김천시의 차기시장 레이스에서 최대원(62) 고려장학회 이사장과 김응규(62) 경북도의회 의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섭(63) 전 김천시 부시장이 두 후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중략)

경북매일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김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를 활용해 차기 김천시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누가 차기 김천시장으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최 이사장은 25.9%의 지지율을 기록, 22.8%를 기록한 김 의장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3.1%포인트 앞섰다. 이어 김 전 부시장 21.7%, 박희주(49) 김천시의원 4.9%, 배영애(70) 경북도의원 3.3% 등으로 집계됐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751>>

(2월 12일자)= 『경주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최양식(66) 경주시장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노리는 무소속 박병훈(54) 전 경북도의회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낙영(58)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정종복(68) 전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

상이다.(중략)

경북매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경주시장 여론조사에서 3선 불출마 선언을 반복했던 최 시장(17.7%)과 바른정당을 사퇴해 한국당 복당을 노리고 있는 박 전 도의원(17.6%)이 오차 범위(±3.1%포인트) 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 시장과 박 전 도의원의 격차는 0.1%포인트였다.(중략)

지역별 조사에서는 최 시장이 제1선거구(황성동·성건동·중부동·현곡면)와 제3선거구(안강읍·강동면·천북면·용강동)에서, 박 전 도의원은 제2선거구(동천동·불국동·양남면·양북면·감포읍·황오동·보덕동)와 제4선거구(서면·건천읍·산내면·내남면·선도동·황남동·월성동·외동읍)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제1선거구에서 최 시장은 17.9%를 받아 각각 15%와 12.2%를 얻은 박 전 도의원과 정 전 의원을 따돌렸다. 제3선거구에서는 최 시장(17.3%), 박 전 도의원(16.5%), 최 전 도의원(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선거구에서는 박 전 도의원이 21%, 최 시장 18.9%, 정 전 의원 16.4%로 순으로 조사됐다. 제4선거구에선 박 전 도의원(18%), 주 전 행정부지사(17%), 최 시장(16.7%) 등의 순이었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86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은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 후보자들의 적합도 여론조사를 기획 보도했다. 적시 기사들은 이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 경주시 관련 보도이다.

그런데 경북매일은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도 기사 본문과 제목에 굳이 순위를 명시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이나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 기사는 이양호와 김석호의 적합도 격차가 0.1%p에 불과한데도 『이양호 전 마사회장이 10.4%를 얻어 10.3%를 얻은 김석호 전 도의원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0.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를 반영해 작은 제목에 「1위 이양호, 2위 김석호」라고 순위를 밝혔다.

안동시 기사는 적합도 상위 두 후보에 대해 『권영세(64) 현 안동시장이 장대진(57) 경북도의회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시장은 ‘누가 차기 안동시장으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27.0%의 지지를 받아 23.5%를 얻은 장 도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두 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3.0%포인트)보다 불과 0.5%포인트 벗어난 수준에 불과』 라고 잘못 해석했다. 위 조사의 경우 적합도 격차 6.0%p까지는 오차범위 이내이다. 큰 제목의 「3.5%p차 박빙 1위」 나 작은 제목의 「23.5% ‘2위」 표현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김천시 기사는 『누가 차기 김천시장으로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최 이사장은 25.9%의 지지율을 기록, 22.8%를 기록한 김 의장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3.1%포인트 앞섰다』 고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을 「최대원 25.9%로 근소차 1위」 로 달았는데,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경주시 기사는 최양식, 박병훈 후보의 적합도 격차가 『0.1%포인트였다』 고 기술했고 있다. 편집자는 큰 제목을 「최양식 간신히 ‘1위」 로, 작은 제목은 「한국당 복당 포석 박병훈과/겨우 0.1%p차 앞선 17.7%」 로 달았다. 두 사람의 적합도 차이는 0.1%p로 오차범위(±3.1%포인트) 이내이며, 이 경우 ‘앞섰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북매일은 위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연령별, 선거구 지역별 하위표본 조사 결과도 함께 기술했다. 경주시 기사에서 『제1선거구에서 최 시장은 17.9%를 받아 각각 15%와 12.2%를 얻은 박 전 도의원과 정 전 의원을 따돌렸다』 고 기술했던 것을 비롯해 오차범위 내 결과를 비교하면서 『눌렀다』 『앞섰다』 『따돌렸다』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보도준칙 위반이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하며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칫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윤리강령’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

도」, 제23조 「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